

# 慶州 南山 石佛의 法衣樣式

The Robe Styles of the Stone Statue of Buddha in Kyung-Ju

경북산업대학교 의상디자인과

강 사 진 현 선

동주여자전문대학 의상과

조교수 이 순 덕

영남대학교 가정대학 의류학과

교 수 이 정 옥

Dept.of Clothing Design, Kyungbuk Industrial Univ.

Lecture : Jin, Hyun-Sun

Dept.of Clothing Design,Dong-Ju Woman's College

Assistant Prof. : Lee, Soon-Deuk

Dept.of Clothing & Textiles,Yeung Nam Univ.

Prof. : Yi, Jung-Ok

## 〈목 차〉

I. 머리말

II. 法衣의 起源 및 着衣法

III. 慶州 南山 石佛의 法衣

IV. 맺는말

참고문헌

## 〈Abstract〉

In this study of the Buddhist Stone Statues in Namsan in Kyungju. We have found out interesting facts as follow.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way the Buddhist Statues wear the robes. There are two basical types of wearing; Tongkyun and Pyundanwookyun.

In Silla, these types of wearing has been developed into its unique types based on the traditional culture. The stone Buddhist images show seven types of wearing based on the standard ones of Tongkyun and Pyundanwookyun. This variety in wearing rests on the various of Sungkari(Samghathi) and Bokgyenui(Samkaksika) and a chest sash which fixes Niwonsung(Nivasana).

There are three cases inferred from the seven types of wearing the Buddha's robes:

(1) Tongkyun type A : The only outer wear Sungkari(Samghathi) was put on as Tongkyun type. We can't find out any Bokgyenui(Samkaksika) or the chest sash of Niwonsung(Nivasana). (2) Tongkyun type B : Bokgyenui(Samkaksika) is put on the chest of Statue in Sungkari(Samghathi). (3) Tongkyun type C : This type is similar to Tongkyun type A, except that the end of the robe dangled down straight to the right side. (4) Tongkyun type D : Bokgyenui(Samkaksika) is bound with a chest sash. (5) Tongkyun type E : The robe is tied on the left shoulder as a cord and Bokgyenui(Samkaksika) is bound with a chest sash. (6) Pyundanwookyun type A : The robe dangled down from the left shoulder to the right armpit diagonally, so left shoulder is naked. (7) Pyundanwookyun type B : This type is similar to Pyundanwookyun type A, but the end of Sungkari(Samghathi) is bound up to the left shoulder again.

Considering above, the robe types of Buddha seem to have something to do with those of the Silla people : The chest sash is similar to the adjustment of Jeogori (the traditional jacket) of the Silla, and the tying cord in Buddha's robe corresponds to that of the traditional types.

## I. 머리말

法衣는 불교의 服飾이다. 법이라 함은 '如法の衣'라는 말로서 佛法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복식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법의는 僧伽梨, 鬱多羅僧, 安陀會의 三衣가 있고 三衣 속에 입는 覆肩衣와 尼漚僧이 있다.

佛像이란 佛格이 造形物을 통하여 具象的으로 표현된 形狀이다. 이러한 불상은 禮拜對象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고 대중을 教化하는 수단이 되므로 원칙적으로는 教理에 입각하여 조성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불상에 표현되어 있는 착의양식도 律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불상에 표현된 법의의 着衣樣式은 다양하다. 외래종교인 불교도 전래과정에서 地域的·社會的 條件에 따라 環境順應의인 變化를 하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삼국시대에 불교가 전래될 때도 불교교리의 일방적인 수용은 아니었으며, 우리나라 고유의 思想, 風習, 傳統 등과習合하면서 土着化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불상양식이나 거기에 나타난 착의양식도 우리나라 고유의 文化的 要素가 스며들어 있다고 하겠다.

지금까지의 先行研究를 보면 僧侶의 服飾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불상의 着衣樣式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윤경렬의 연구에 의하면<sup>1)</sup> 현재까지 경주 남산에서는 79軀의 석불이 발견되고 있다고 한다. 본고에서는 이 79軀의 石佛 中 着衣形態가 대체로 분명한 20石佛을 선정하여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연구방법은 1993년 5월에서 6월사이의 2개월에 걸쳐 4차례 경주남산의 현지를 답사하여 석불을 직접 관찰하고 사진을 촬영하고 그것을 模寫하여 着衣樣式을 유형화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7세기초에서 9세기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주 남산의 현존불상에 나타나 있는 법의양식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究明하고자 하는데 있다. 한편 이것을 律이나 佛教發生地인 印度의 法衣의 着衣樣式과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에 관한 선행연구로서는 인도의 불상과 경전 그리고 일상적 복식을 토대로 하여 인도의 법의의 착의법을 유형화한 임영자의 연구<sup>2)</sup>가 있다. 본고에서는 그것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하고 경주 남산 석불의 착의양식과 비교하여 보았다.

## II. 法衣의 起源 및 着衣法

### 1) 法衣의 起源

法衣는 발우(鉢盂)와 함께 出家 受戒人이 구비해야 하는 기본적인 물품이다. 법의가 제정된 동기는 불교가 하나의 새로운 教壇으로 출범하게 되면서 차츰 그 信奉者와 追從者가 늘어나 修行集團을 형성하자 그들을 俗人 또는 他宗教 教派들<sup>3)</sup>과 구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三衣가 比丘의 服飾으로써 제정된 것은 釋迦가 1250명의 비구를 데리고 비사리(●舍離)에서 菟婆羅婆提로부터 供養을 받고 나오다 露地에 앉아 있을 때, 初夜에는 一衣인 五條衣(安陀會 : Antravasa)만 입었다가 中夜에 조금 寒氣를 느껴 二衣인 七條衣(鬱多羅僧 : Uttarasangha)를 입고, 後夜가 되니 다시 더 寒氣를 느껴 三衣인 九條衣(僧伽梨 : Samghathi)를 입었는데, 그 이후로 釋迦는 삼의만 가지면 추위를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여 비구를 모아 놓고 三衣 이상은 가지지 말라고 制限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sup>4)</sup>

법의의 意義는 「行事抄資持記」에서 보면 ‘첫째 추위나 더위를 막기 위함이고, 둘째는 恥部를 가려서 羞恥心을 없애기 위함이고, 세째는 마을에 나가 乞食하기 위함이고, 네째는 慈善을 행하기 위함이고, 다섯째는 威義가 清正하기 위함’이라고 하여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sup>5)</sup>

律藏에 의하면 불타가 비구승단의 법의를 田文相의 조각옷으로 지어 입도록 하였다. 그것은 법의가 타종교의 복식과 구별되게 하고, 도적에게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남방의 정연한 水田모양을 본따서 그것을 짓는 법을 고안하도록 아난에게 명함으로부터라고 한다.<sup>6)</sup>

법의는 중국에 전래된 이후 불교를 닦는 사람의 옷이라는 뜻에서 道服, 世俗을 떠난 사람의 옷이라는 뜻에서 出世服, 불법을 아는 사람의 옷이라는 뜻에서 法衣, 六塵에서 멀리 떠난 사람의 옷이라는 뜻에서 이진복(離塵服), 煩惱를 없애고 德을 쌓게 한다는 뜻에서 소유복, 染着이 蓮花와 같다는 뜻에서

蓮花服, 五正色을 피한 色으로 만든다고 해서 間色服, 慈悲를 행하는 사람의 옷이라는 뜻에서 慈悲服, 袈裟의 條相이 발둑과 같고 그 덕이 福田이 되어 공양을 받기 때문에 福田衣, 모양이 이부자리와 같아서 와구(臥具), 또는 부구(敷具) 등으로 불리워지게 되었다.<sup>7)</sup>

인도에서는 이러한 사리형태의 삼의를 법의로 정했으나, 삼의 외에 하의도 또한 법의로 포함되게 하였다. 印度에서도 이 下衣類가 사용되고 있지만 차츰 寒帶地方인 中國等地로 불교가 전래되면서 그 나라의 風土에 맞는 服飾이 考案되어 변형된 형태로 입혀지게 되었다. 따라서 법의는 인도에서는 평상복이었는데, 여기에 종교적인 상징 또는 의식을 위한 하나의 복식으로 바뀌면서 승려가 법의 안에 입고 있는 그 나라의 固有服裝까지도 법의에 포함되게 되었다. 따라서 삼의외에 내의류를 포함하여 승려의 몸에 걸치는 것을 모두 法衣라고 불리게 되었다.

### 2) 法衣의 着衣法

#### (1) 外衣

법의는 다음과 같은 大, 中, 小의 三衣(trinicivarvni)가 있다. 즉 僧伽梨(Samghati), 鬱多羅僧(Uttarasangha), 安陀會(Antravasa)이다. 이것은 입는 용도에 따른 구별인 동시에 條에 따른 구분이기도 하다.

법의의 착의 순서는 大衣인 僧伽梨를 입고 그 다음 필요에 따라서 安陀會나 鬱多羅僧을 입고 그 속에 覆肩衣와 尼洹僧을 입는다. 覆肩衣는 상의를 말하며 가슴 부위를 가리기 위한 의복으로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거드랑이로 내려 입는다. 尼洹僧(Nivasana, 니박사나)은 下衣이다.

「四分律」에 의하면 三衣 中 安陀會는 長이 4肘, 廣이 2肘이며(長7尺2寸, 廣4尺5寸), 鬱多羅僧과 僧伽梨는 長이 3肘, 廣이 3肘(長9尺, 廣5尺4寸)라고 하였다<sup>8)</sup>. 長短의 단위로 쓰는 주는 범어 hasta의 譯語인데 인도문화권에서 쓰이던 尺度法의 한 단위로 두 뼘에 해당하는 길이이다. 사람의 보통 키를 4肘 혹은 3肘半이라 하면 4肘를 기준으로 僧伽梨나 鬱多羅

僧은 長210 Cm×廣 132 Cm 의 長方布가 되고, 安陀會는 長 168 Cm×廣 84 Cm 의 長方布가 될 것이다.<sup>9)</sup>

인도에서 착용되어지기 시작한 法衣는 外衣인 三衣와 內衣인 覆肩衣와 尼洹僧이다. 外衣의 着衣法에는 크게 通肩과 偏袒右肩의 두가지 方式이 있다. 通肩은 양쪽 어깨를 모두 덮는 착의법이다. 이러한 착의법은 한냉한 간다라 지방의 着衣法이다. 佛敎가 한냉한 西北 지역으로 전파되어 가면서 그 기후 풍토에 순응하여 通肩 着衣法을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던 듯하며, 이런 흔적은 율장에서 찾아 볼 수 있다.

偏袒右肩은 옷을 左肩에 걸치고 右肩을 노출시키는 착의법이다. 이러한 着衣法은 熱帶性氣候 地域인 中印度에서 주로 착용하였다. 그 이유는 간다라의 初期 佛像樣式에서 한결같이 通肩着衣法만을 확인할 수 있고, 中印度 마투라 佛像의 初期樣式에서는 偏袒右肩 着衣法만을 확인할 수 있으며, 兩大樣式이 상호 영향을 미쳐가는 단계에서 通肩 着衣法과 偏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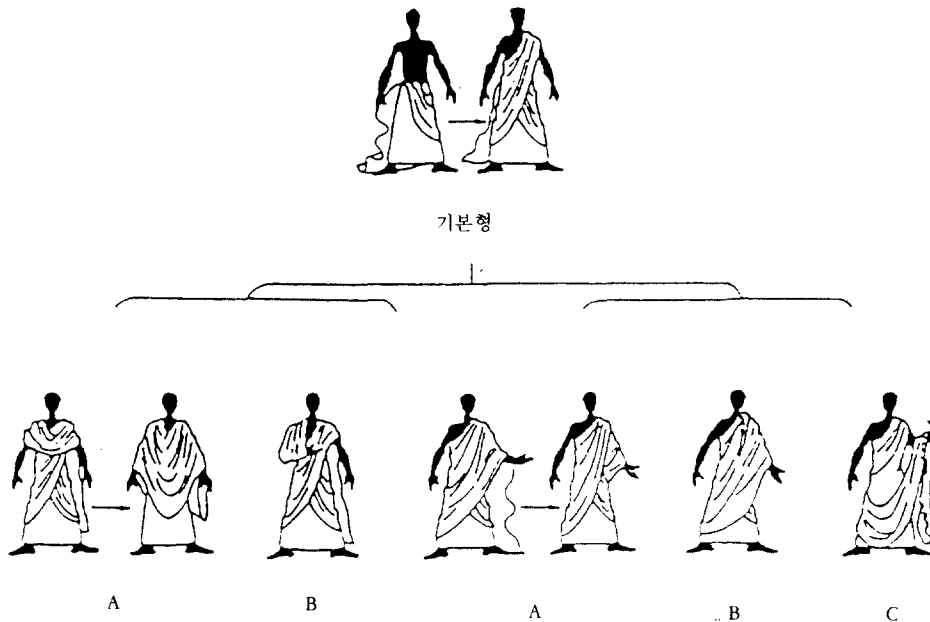
右肩 着衣法이 交叉擴散되는 현상을 확인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sup>10)</sup>

착의법은 이 두가지 방법을 基本으로 하지만, 옷자락을 감는 형태는 여러가지가 있다. 着衣法을 圖式化하고 옷자락을 감는 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그림 1>과 같다.

#### 가) 通肩 着衣法

通肩(A)形은 속옷 위에 큰 천의 한쪽을 주름 다발로 하여 그것을 前面 右側 部分의 안쪽에 끼워 넣고, 왼쪽부터 뒤쪽을 감아서 천을 오른쪽 거드랑이 부분까지 가져온다. 몸을 한번 감은 천의 上端을 속옷의 상단에 끼워 넣듯이 하고, 천을 오른쪽 옆구리부터 비스듬히 가슴을 통과하여 왼쪽 어깨에 가져와서 목주위를 한바퀴 돌린다. 목을 크게 감은 천을 느슨히 몸통을 감싸듯이 하여 한번 더 목주위를 한바퀴 돌리고 그 끝을 오른쪽 어깨에 걸친다.

通肩(B)形은 천의 한쪽을 주름다발로 하여 속옷 안쪽에 끼우고 천을 왼쪽에서 뒤로 돌려 오른쪽 옆



<그림 1> 通肩 및 偏袒右肩의 着衣法(任榮子, 앞의 책, p.27.)

구리 부분에 가져와 비스듬히 왼쪽 어깨에서 올린 다음 왼쪽 어깨에서 목뒤로 감고 오른쪽 어깨 천을 앞면에 내려 팔꿈치를 구부린 오른쪽 팔에 천을 감고 그 끝을 꼬아서 가늘게 하여 왼쪽 어깨로 가져와 끝을 어깨로부터 뒤로 늘어뜨리는 것이다.

#### 나) 偏袒右肩 着衣法

偏袒右肩(A)形은 천을 한바퀴 돌려 오른쪽 옆구리로부터 몸의 앞면을 지나 왼쪽 위까지 올리고, 그 천을 뒤쪽으로 엮어 오른쪽 옆구리로 비스듬히 내리고, 다시 왼쪽팔을 가리듯이 하여 다시 왼쪽 어깨쪽으로 완전히 들어올려 끝을 왼쪽 어깨 뒤쪽이나 왼쪽 팔 넘어 늘어뜨리는 방법이다. 이러한 착의 법은 인도 굽타조(320-560)의 불상에서 많이 볼 수 있다. 偏袒右肩(B)形은 위 (A)의 변형으로 신체의 앞면이 아니고 뒤쪽에서 오른쪽 옆구리로부터 왼쪽 어깨로 비스듬히 위로 올리고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옆구리로 돌아오는 경우에는 신체의 앞면을 지나고 끝으로 신체 뒷면을 한번 더 올라가 그 끝을 왼쪽 어깨에서 앞쪽으로 늘어뜨린다. 이러한 형식은 인도 파라기(8-10세기)의 불상에서 많이 볼 수 있다.

偏袒右肩(C)形 또한 (A)의 變形으로 오른쪽 옆구리에서 가슴을 지나 왼쪽 어깨쪽으로 올리고, 왼쪽 어깨에서 등을 지나 오른쪽 옆구리로 돌린 후 앞쪽으로 길게 늘어뜨린 천을 느슨하게 하면서 끝을 왼손의 팔뚝에 걸친다.

위에서 살펴 본 5가지의 착의법은 어깨에서부터 감아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허리에서부터 上半身 또는 몸통부분으로 감아 올리는 형식이다. 이러한 着衣法은 인도, 오리엔트, 그리이스 문화권에서 공통적인 것으로 그리이스의 服制인 히마티온(Himation)과 로마의 토가(Toga), 인도의 사리(Sari)의 着衣法과 같다.<sup>13)</sup>

#### (2) 內衣

法服格正에 「祇支는 원래 僧尼 함께 허락하시고, 覆肩은 尼에게만 허용하시다. 단지 僧 가운데 阿難한 사람에게 覆肩을 허용하신 일이 있다.」라 하고 있다. 그리고 覆肩衣의 制定은 釋種法에서 출가한 貴族 女人 比丘尼가 어깨를 드러내고 行乞하고 世人의 注

目を 받은 일 때문에 제정된 것으로 되어 있다<sup>14)</sup>.

이와 같이 어느쪽이든 偏袒右肩으로 하여 노출된 어깨나 가슴 등을 가리는 目的으로 使用된 속옷임은 분명한 것 같다. 比丘의 三衣는 基本的인 옷차림이었으나 점차로 比丘尼와 같이 三衣 외에 이와 같은 속옷도 사용하게 되었다. 그와 함께 下半身의 속옷도 있었다.

인도에서 下內衣로 사용되어진 裳類는 도티(Dhoti)라고 하여 貴賤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다 입는 기본 의복이다. 승려들의 도티에 해당하는 내의류는 장방포인 尼洹僧(Nivasana)으로 허리에 돌려 감고 腰帶를 매었다. 그러나 이 尼洹僧은 의외에 덮혀 있어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尼洹僧의 착의법은 腹部 앞 中央에 裙幅이 重疊되어 주름을 잡듯이 左右邊이 여며지게 하고 여기에 衣帶를 매지 않고 두 끝을 서로 여며 꺾어 끼우도록 한다. 그러므로 가끔 여민 곳이 풀어져 옷이 흘러 내려서 알몸을 노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sup>14)</sup>

「四分律」에 의하면 비구가 띠를 매지 않고 속인의 집에 갔다가 尼洹僧이 풀어져 알몸을 드러내는 망신을 당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불타는 비구가 尼洹僧을 입을 때 반드시 의대를 매도록 규정했다. 이는 곧 비구의 의제의 규범이 되었던 불타 자신도 尼洹僧에 의대를 매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sup>14)</sup>

衣帶는 불타의 衣服觀을 좇아서 비단이나 아름다운 색 또는 백색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고 다만 法衣와 같은 색으로만 만들며, 넓이는 二指, 길이는 허리를 세번 감는 것을 넘지 못하게 하였다.<sup>15)</sup>

### Ⅲ. 慶州 南山石佛의 法衣

#### 1) 南山石佛의 造成

新羅의 佛敎는 訥祗王(417-467) 때 高句麗에 의하여 전래되었지만 소지왕(479-499) 때의 탄압으로 크게 위축되었다가, 이차돈의 殉敎(法興王 14년: 527)를 계기로 정식공인을 받게 되었다. 이 때부터 불교는 점차 신라 사회에 전파되기 시작하였고, 법흥왕 22년(535)부터 시작한 興輪寺의 創建을 계기로

확고한 기반을 굳히게 되었다. 신라 불교의 특징은 王室佛敎이며 國家佛敎인 것을 들 수 있는데, 이는 國家의 安慰와 發展을 비는 護國的인 性格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또한 호국적인 성격 외에 신라 불교의 특징은 信仰의 中心地가 國都 慶州를 중심으로 귀족들에 의해 행해졌다는 점이다. 신라 귀족들의 신앙심은 불교 寺刹의 擴張과 名勝地 寺刹 建立을 더욱 촉진시켜 이로 인해 國都 慶州와 근접해 있는 南山을 중심으로 寺刹과 佛像의 建立이 시작되었다. 이로부터 南山은 거의 300년 동안 新羅의 建國과 統一, 佛敎信仰의 本據地로 일종의 聖域으로 여겨져 왔다.

또한 이 곳은 특히 부처를 조각할 수 있는 自然岩石이 豊富하였다. 이러한 緣由로 南山은 신라의 불

상을 대표할 만한 石佛들이 많이 조성되게 되었으며, 現在까지 모두 79石佛이 발견되고 있다.<sup>10)</sup>

#### 2) 南山石佛의 着衣樣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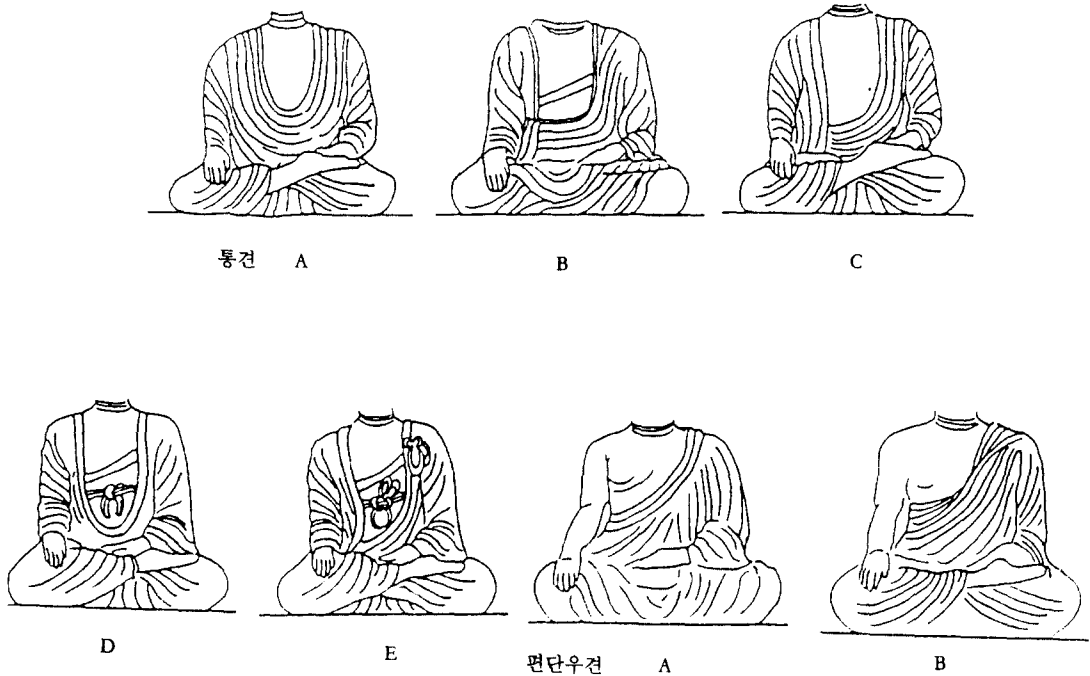
法衣인 僧伽梨, 鬱多羅僧, 安陀會는 형태는 같으나 크기는 다르다. 따라서 石佛의 법의종류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慶州 南山 20佛像의 服飾을 袈裟, 上內衣, 下內衣, 着衣法을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앞의 <표 1>을 요약해 살펴보면, 外衣는 모두 僧伽梨를 착용했다고 보아진다. 남산의 불상에서는 條의 표시를 볼 수 없다. 上內衣로는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거드랑이 부분으로 비스듬히 내려입는 覆肩衣를 착용하고 있다. 覆肩衣를 볼 수 있는 佛像은 三花嶺 彌勒如來倚像, 彌勒谷 石佛坐像, 七佛庵 四面佛,

<표 1> 慶州 南山 石佛에 나타난 服飾

着衣形式		服飾 佛像	袈裟	上內衣	下內衣	帶	特徵
通肩	A形	佛谷 石佛如來坐像	僧伽梨		尼洵僧	--	尼洵僧에 規則的 주름
		拜里 石佛立像	僧伽梨	---	尼洵僧	--	
		金光寺址 石造如來立像	僧伽梨		尼洵僧	--	
		塔谷 石造如來立像	僧伽梨	---	尼洵僧	--	
	B形	潤乙谷 南面如來坐像	僧伽梨		화인안됨		
		彌勒谷 石佛坐像	僧伽梨	覆肩衣	화인안됨	---	
	C形	葺長寺谷 磨崖釋迦如來坐像	僧伽梨	覆肩衣	화인안됨	--	
		三陵谷 藥師如來坐像	僧伽梨	---	화인안됨	--	
	D形	三花嶺 彌勒如來倚像	僧伽梨	覆肩衣	尼洵僧	매듭	
		七佛庵 四面佛	僧伽梨	覆肩衣	尼洵僧	매듭	
		三陵谷 磨崖如來坐像	僧伽梨	覆肩衣	尼洵僧	매듭	
	E形	潤乙谷 釋迦如來坐像	僧伽梨	覆肩衣	尼洵僧	매듭	
		三陵谷 石佛坐像	僧伽梨	覆肩衣	화인안됨	매듭	纒子로 袈裟를 묶음
葺長寺谷 石佛坐像		僧伽梨	覆肩衣	화인안됨	매듭	纒子로 袈裟를 묶음	
偏袒右 肩	A形	塔谷 阿彌陀如來像	僧伽梨		화인안됨		
		三陵谷 如來坐像	僧伽梨	---	화인안됨	--	
		潤乙谷 藥師如來坐像	僧伽梨	---	화인안됨	--	
	B形	七佛庵 本尊佛	僧伽梨	---	화인안됨	--	
		三陵谷 釋迦如來坐像	僧伽梨	---	화인안됨	--	
		三陵谷 阿彌陀如來像	僧伽梨	---	尼洵僧	--	

資料: 79軀의 石佛을 사진촬영하고 그 가운데 形態가 分명한 20軀의 石佛의 着衣形態를 類型化한 것임.



〈그림 2〉 慶州 南山 石佛의 法衣類型(〈표 1〉을 圖形化 한 것임.)

三陵谷 石佛坐像, 三陵谷 磨崖如來坐像, 葺長寺谷 石佛坐像, 潤乙谷 釋迦如來坐像이다.

覆肩衣 위에는 끈으로 매듭을 지어 묶었는데 매듭의 형태를 다양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매듭의 형태는 신라인들의 복식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예로는 三花嶺 彌勒如來倚像, 七佛庵 四面佛, 三陵谷 石佛坐像, 三陵谷 磨崖如來坐像, 葺長寺谷 石佛坐像, 潤乙谷 釋迦如來坐像 등을 들 수 있다.

下內衣로는 모두 尼洹僧을 입었으며, 니원승을 묶은 帶는 승가리에 가려 볼 수 없다. 가사를 고정시키는 纓子を 볼 수 있는 불상은 三陵谷 石佛 坐像과 葺長寺谷 石佛 坐像이다. 불상에서 영자를 사용한 예는 드문 일이다. 이것은 영자를 매듭으로 지어 묶음으로써 機能的인 면보다 裝飾的인 면을 중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통해 신라불교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

佛像에 나타난 법의의 종류는 大衣인 僧伽梨, 가슴을 가리도록 대의 속에 걸쳐진 覆肩衣, 하군인 尼洹僧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한정된 법의의 종류에도 불구하고 불상에 표현된 법의의 착의 양식은 아주 다양하다.

着衣樣式은 通肩과 偏袒右肩의 크게 두 가지이며, 이 두 착의양식을 기본으로 하여 승가리의 착의법, 覆肩衣와 尼洹僧의 착의유무, 가슴띠의 표현 등을 기준으로 경주남산 석불에 나타난 법의의 착의법을 분류하면 7가지의 유형〈그림 2〉으로 나눌 수 있다.

(가) 通肩

通肩(A)形은 가장 基本形이라 말할 수 있다. 이것은 큰 장방형 布로 하체를 감싼 尼洹僧 위에 僧伽梨 자락을 몸 위로 감아 올려 앞을 둥근 U형으로 나타낸 형태이다. 佛谷 石窟如來坐像, 拜里 石佛立像, 金光寺址 石造如來立像, 塔谷 石造如來坐像, 潤乙谷 南

面 如來坐像이 이 형식에 속한다.

通肩(B)形은 왼쪽 어깨 위에서 단이 주름져 접혀 있고, 오른쪽 어깨에서 내려뜨려진 옷자락은 가슴부분의 옷깃 속에 살짝 접혀져 들어간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승가리 속에는 복건의가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로 입혀진 것을 볼 수 있다. 彌勒谷 石佛坐像과 葦長寺谷 磨崖釋迦如來坐像이 이 형식에 속하는데, 이 두 佛像의 상이점은 미륵곡 석불좌상은 법의 속에 內衣인 覆肩衣를 덧입고 있다는 점이다.

通肩(C)形은 오른쪽 어깨에서 내려온 법의의 단이 오른쪽 팔과 다리로 길게 늘어져 내려오고, 왼쪽 법의의 단은 둥근 형으로 주름져 내려와 오른쪽 법의의 안으로 넣어 감겨져 있다. 여기에 속하는 불상은 三陵谷 藥師如來坐像을 들 수 있다.

通肩(D)形은 佛像의 가슴을 많이 드러내도록 앞자락을 연속적인 U형으로 착용한 법의 속에 왼쪽 가슴에서 우른쪽 겨드랑이 밑을 지나는 覆肩衣를 대각선으로 보이도록 입는다. 그리고 그 위에 가슴띠를 매어 띠의 매듭 부분이 보이도록 착용한 형태이다. 三花嶺 彌勒如來倚像, 七佛庵 四面佛, 三陵谷 磨崖如來坐像, 潤乙谷 釋迦如來坐像이 이 형식에 속한다. 이렇게 법의가 도포처럼 걸쳐지면서 앞 가슴이 많이 노출되고 내의가 입혀진 것이 보이는 형태는 우리나라 불상이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 추측된다.

通肩(E)形은 僧伽梨가 왼쪽 어깨 위에서 纓子로 매듭지어져 고정되어 있고 覆肩衣의 가슴띠가 매듭으로 장식되어 있다. 三陵谷 石佛坐像과 葦長寺谷 石佛坐像이 여기에 속하는데, 왼쪽 어깨의 매듭 끈이 길게 結跏趺坐한 다리까지 늘어뜨려져 있다.

#### (나) 偏袒右肩

偏袒右肩(A)形은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겨드랑이 부분으로 비스듬히 내려와 감긴 형으로 塔谷 阿彌陀如來像, 三陵谷 如來坐像, 潤乙谷 藥師如來像을 들 수 있다.

偏袒右肩(B)形은 (A)형과 같은 형식이나, 왼쪽 어깨 부분의 법의의 자락이 反轉되어 있는 것이 다른 점이다. 이 형식에 속하는 것은 七佛庵 本尊佛, 三陵

谷 釋迦如來像, 三陵谷 阿彌陀如來像을 들 수 있다.

## IV. 맺는말

경주 남산 석불에 나타난 法衣의 着衣樣式을 살펴 보았다. 신라시대에는 중국을 왕래한 留學僧, 使臣, 佛法을 구하기 위해 인도를 왕래한 僧侶들에 의하여 불상이 전래되었다. 신라에 전래된 불상은 新羅의 佛教精神과 新羅人의 情緒에 맞는 형식으로 발전되었다.

경주 남산의 신라시대 석불들의 법의양식을 보면 通肩과 偏袒右肩의 두 형태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僧伽梨 着衣法, 覆肩衣·尼洹僧의 着衣 有無, 그 위에 둘러진 띠의 有無, 왼쪽 어깨 위에 표현된 袈裟의 纓子の 有無에 따라 7가지의 類型으로 분류되었다.

慶州 南山 石佛의 着衣類型은 첫째, 通肩 樣式 중 가장 기본형이라 말할 수 있는 것으로 尼洹僧 위에 僧伽梨를 묶 위로 감아 올려 앞을 둥근 U형으로 나타낸 형태 둘째, 通肩 樣式이며 왼쪽 어깨 위에서 단이 주름져 접혀있고, 오른쪽 어깨에서 내려뜨려진 옷자락은 가슴부분의 옷깃 속에 접혀져 들어간 형태 셋째, 通肩 樣式으로 오른쪽 어깨에서 내려온 法衣의 단이 오른쪽 팔과 다리로 길게 늘어져 내려오고, 왼쪽 法衣의 단은 둥근 형으로 주름져 내려와 오른쪽 法衣의 안으로 넣어 감겨져 있는 형태 넷째, 通肩 樣式이며 왼쪽 가슴에서 우른쪽 겨드랑이 밑을 지나 覆肩衣를 대각선으로 보이도록 입고 그 위에 가슴띠를 매어 띠의 매듭 부분이 보이도록 착용한 형태 다섯째, 通肩 樣式이며 승가리가 왼쪽 어깨 위에서 纓子로 매듭지어져 고정되어 있고 覆肩衣의 가슴띠가 매듭으로 장식되어 있는 형태 여섯째, 偏袒右肩으로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겨드랑이 부분으로 비스듬히 내려와 감긴 형태 일곱째, 偏袒右肩으로 왼쪽 어깨 부분의 僧伽梨의 자락이 反轉되어 있는 형태 등이다.

이러한 着衣樣式은 通肩과 偏袒右肩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불교의 발생지인 印度의 法衣 着衣樣式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차이를 발견하게 되었



다. 첫째, 覆肩衣위에 다양한 형태의 띠매듭이 있고, 둘째, 僧伽梨 着衣樣式에서 纒子를 使用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불교의 수용과정에서 신라의 고유한 문화적 요소(복식)가 깎아지른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즉 僧伽梨 속에 나타난 內衣의 여밈은 신라인의 저고리 여밈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고, 僧伽梨와 가슴띠의 매듭은 우리나라의 服飾에 이용된 매듭과 유사하다.

본연구는 특정한 대상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연구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신라시대에서의 미의식, 신라인들의 일상적 복식 등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일이 앞으로의 연구과제이다.

### 【참 고 문 헌】

- 1) 윤경렬, 『겨레의 땅 부처님 땅』, (불지사, 1993).
- 2) 任榮子, 『韓國 宗教服飾』, (亞細亞文化社, 1990).
- 3) 古代 印度에는 96種의 外道들이 있었다.
- 4) 『新修大藏經』卷22, pp.655-857.
- 5) 任榮子, 앞의 책, p.15.
- 6) 『四分律』卷40, 〈衣持度〉2.
- 7) 진홍섭, 『한국의 불상』, (일지사, 1992), P.80.
- 8) 『新修大藏經』卷22, p.321.
- 9) 任榮子, 앞의 책, p.19.
- 10) 安明淑, 「袈裟의 衍義에 관한 研究」, (東國大學 校大學院博士學位論文, 1989), pp.51-53.
- 11) 任榮子, 앞의 책, p.28.
- 12) 『新修大藏經』卷22, p.187.
- 13) 崔完秀, 「이중착의법고」, 『佛敎美術』(동국대학교, 1989), P.48.
- 14) 崔完秀, 「간다라 佛衣攷」, 『佛敎美術』(동국대학교, 1989), P.84.
- 15) 『新修大藏經』卷22, p.855.
- 16) 윤경렬, 앞의 책, p.358.